

미국의 한반도 전쟁 준비 3대 징후와 모니터링 방안



미국이 만약 북한을 군사공격하려 한다면 크게 3가지 준비태세 징후가 관측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한국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킨다면 군사대응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항공모함 세척 이상의 전단들이 한반도에 집결할 때에도 전쟁준비 징후로 볼 수 있다. 셋째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반도 인근에 대거 출몰할 때에도 위험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징후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긴급 대피

미국은 북한을 군사공격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미국민간인 10만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일부 미군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먼저 대피령이 내려져 용산이나 평택 등 미군기지에

집결시켜 등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가 담긴 ID팔찌를 착용토록 한다. 이후 대구나 김해 공항으로 이동해 C-130 미군 수송기 편으로 일본 오키나와로 긴급 대피하게 되고 오키나와에서 다시 미 본토로 소개되는데 민간인 대피에는 열흘내지 2주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한국 내 미국인 철수 메시지는 AFN에서 나오는 빙 크로스비의 'White Christmas'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對北)공격이 임박하게 될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13만 6000명의 미국민들은 미 정부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명백한 신호를 받는다. 메시지는 주한미군 지부 라디오 방송인 AFN에서 나오는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현 호치민)에서 미군이 철수작전을 수행할 때 들린 음악이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은 미국시민들은 약속된 '집결지점'에 모여 한국을 떠나게 된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국인 일부를 배로, 일부는 항공기를 통해 일본으로 철수시킨다. 또, 한반도 비상사태시 소개계획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캐나다, 영국 등이 미국인 철수계획에 협조해야 한다.

4. US Carrier Strike Groups Locations Map 확인

미국 항모전단 배치 현황을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outhfront.org> 또는 GOOGLE에서 'US CARRIER STRIKE GROUPS LOCATIONS MAP'을 검색하면 미국 항모전단의 현재 위치 및 최대 3주 뒤에 배치 예정을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미국 서부에 배치중인 항모가 동아시아로 이동경로 포착 시 전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3. 항공모함 세척 이상의 전단들이 한반도에 집결

11척이나 있는 항공모함 전단에는 한척당 순양함 1~2척, 구축함 2~3척, 핵잠수함, 지원함 등이 배속돼 있고 전투기 등 항공기 8~90대, 해병과 해군 등 승조원 6000명씩 타고 있다. 따라서 세척의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집결된다면 군함만해도 수십척이 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꺼번에 1000발이나 발사해 북한의 핵심 핵미사일 시설, 방공망, 군사령부 등 부터 타격하게 된다.

5.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반도 인근에 대거 출몰

핵추진 잠수함들은 장시간 은밀하게 작전을 벌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지스 첨단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이나 순양함은 현존하는 최상의 감시 레이더인 AN/SPY-1 레이더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동시에 펼칠 수 있어 정밀타격에 필요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최신정보 수집으로 보아야 한다.

6. 미군 · 병사의 외출 및 휴가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결심하게 되면 군인들의 외출 및 휴가는 자연스럽게 금지된다. 전쟁의 가능성을 알리는 ‘데프콘 3’와 ‘진돗개 돌’이 발령되기 때문이다. 선제적 타격에 따른 전면전이 예상될 경우 주한미군과 육해공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또,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루기 위해 주한미군에 주둔하는 미공군 병력이 증원된다. 한국군 지휘관 참모들은 퇴근하지 못한 채 영내 대기하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뿐만 아니라 각 사단의 훈련빈도 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군 사령부와 군단 지원부대는 전방 사단으로 전개돼 북측 군단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전쟁 기미를 포착한 중국은 난민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게 된다.

7. 주식거래 · 금융기관 거래중단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증시는 열린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거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미국 뉴욕증시 등이 열리지 않았다. 전쟁지역이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뉴욕증시는 휴장한 적이 적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주식시장을 포함,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해야 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예방전쟁 언급에 ‘전면전’, ‘괘 포위 사격’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사상자만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북 갈등. 기업에서는 전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